



소형근(서울신대)

1. 서론

바빌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 유다 공동체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구약성서의 책으로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독보적이다. 에스라-느헤미야서를 통해 귀환한 '골라'(גּוֹלָא) 공동체의 삶의 양태와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에스라와 그의 지지자들인 '하레딤'(חֲרֵדִים; 스 9:4; 10:3)은 공동체 정화와 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혼합 결혼한 가정 해체라는 파격적인 개혁을 통해 엄격하고, 과격한 율법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스 9-10장),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건고한 언약(느 9:38-10:39)은 고전적 신명기 언약과 다메섹 분파 사람들의 언약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되어 정치에 제의적 민족성을 적용한 느헤미야가 훗날 마카비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¹ 이처럼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포로기와 포로 이후를 거치면서 야훼신앙이 유대교로 나아가는 중요한 다리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불연속성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있어 왔다.² 본 논문이 의도하는 바는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기존 연구 결과물들을 기초하여 아직까지 국내 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난제들을 구약성서 본문들과 페르시아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 이미 앞서 다루었던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주요 주제들(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연대 논쟁, 에스라의 임무와 업적에 대한 논쟁, 느헤미야의 행적에 대한 논쟁)³은 이미 다루었기에 본 논문에서는 피하도록 할 것이다.

2. 난제들

1) 이방인 포비아?

기원전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강제 이주자들은 어떤 생활을 영위했을까? 혹시 이들은 바빌론인들의 감시 아래 강제 노역에 끌려 다니며 원치 않은 비참한 삶을 살거나, 혹은 군대 용병으로 차출되어 전쟁에 동원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또는 제한된 구역 안에 거주하면서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외부와 접촉할 수 있었던 주거의 제한은

* 이 연구는 2019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본 논문은 제112차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형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316.

2 이에 대해서는 김래용의 연구사 논문을 참고하라. 김래용,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연구사: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337-369.

3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민경진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할 것이다. 참고.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에스라-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7집 (2008년 3월), 113-137; 김선중, “에스라-느헤미야 연구 서설”, 『구약논단』 73집 (2019년 9월), 49-73.

없었던 것일까? 우리는 포로민들에 대한 정경상의 제한된 정보로 인해 바빌론에 강제 이주된 유다 사람들의 삶의 양태에 대해 갖가지 예측만을 해보게 된다. 하지만 앞선 상상과는 달리 바빌론에 강제 이주된 유다 사람들은 비록 바빌론 제국의 감시 아래에 있기는 했지만, 그들만의 고유한 구획을 불하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고, 자유롭게 결혼도 할 수 있었으며(렘 29:5), 또한 여러 포로민들과 상업적 목적을 위한 조직(*hatru*)을 만들어 상거래를 통해 제국의 왕실에 부과금이나 세금을 납부하면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⁴ 또한 강제 이주된 자들은 바빌론 지역에서도 신앙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기는 했지만,⁵ 이들의 삶은 과거 유다 지역과 달리 국제 환경에 적응한 자유분방한 신앙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우룩(Uruk), 우르(Ur), 시파르(Sippar) 등지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췌기문자 점토판들 중에 특히, 1893년에 니푸르(Nippur) 지역에서 발견된 무라슈 문서(*Murašû texts*)에는 히브리 이름⁶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단체의 대표, 재산가, 감독, 전령, 관리, 교사, 서기관 등과 같은 일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⁷ 이러한 예들은 바빌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강제 이주당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바빌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비교적 잘 적응했으며, 또한 그 사회에 잘 동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민족들과 상생을 위한 목적으로 이들이 처한 국제 환경에서 이방인과 혼인했던 ‘혼합 결혼’은 매

4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170.

5 에스겔 11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포로민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 에스겔의 집에 장로들이 찾아와 에스겔에게 임한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다(겔 8:1; 14:1 등). 또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귀환자 명단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남’이라는 성전(소) 봉사자들이 나열되고 있고, 레위 사람들은 가사바 지방에 집단 거주하게 된다(스 8:17-20). 그리고 비록 바빌론 지역은 아니지만 이집트의 엘레판틴 지역에서 ‘야후’(Yhw) 성전이 세워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훼신앙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빌론 지역에 강제 이주된 자들은 아훼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6 히브리 이름은 다음 글을 참고하라. M. W. Stolper, *Entrepreneurs and Empire: The Murasu Firm, and Persian Rule in Babylonia* (Istanbul: Nederlands Historisch-Archaeologisch Instituut, 1985), 70-85.

7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171-172.

우 일반적이었던 것이 분명했다.⁸

고레스 칙령으로 바빌론 지역에 강제이주 되었던 유다의 후손들 42,360명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스 6:64). 이 '귀환자 공동체'를 흔히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골라 공동체'라 부른다. 이 골라 중에는 바빌론 지역에서 상당한 부(富)를 축적했던 자들도 있었고,⁹ 또한 상당한 권력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¹⁰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다. 바빌론 지역에서는 국제적 환경이었고,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누군가 지적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바빌론 지역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리오 1세 제6년 아달월에 제2성전을 건축하면서(기원전 516/5년) 이제 골라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다시 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골라 공동체의 정화를 위한 개혁조치 중 가장 으뜸으로 대두되는 주제가 '혼합 결혼'에 대한 문제였다.¹¹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골라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이 '혼합 결혼'의 문제를 개혁주제로 삼았다(스 9-10장; 느 13:23-31). 혼합 결혼 금지에 대한 성서적 기원은 신명기 7장 1-4절이다. 신명기 7장 1-4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공동체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가나안의 이방족속들에게 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4절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하는 규정이지,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기혼자들의 가정을 해체시키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었다.

8 이에 대해서는 에팔(E. Ephal)의 두 편의 글을 참고하라. E. Ephal, "The Western Minorities in Babylonia in the 6th-5th Centuries B.C.: Maintenance and Cohesion", Or 47 (1978), 74-90; "On the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 of the Jews in Babylonian Exile", in *XXI Deutscher Orientalistentag Vorträge*, ed. Fritz Steppart. ZDMGSup 5 (Wiesbaden: Steiner, 1983), 106-112.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도비야가 아라 자손과 결혼했고(느 6:17-17), 산발랏이 대제사장 가문과 결혼동맹을 맺었으며(느 13:28), 요세푸스의 글에는 산발랏의 딸 니카스와 예루살렘 대제사장 므넷세의 결혼을 알려주고 있다(Ant. 11.312). 포로 이후 실제 가문들 간의 혼합 결혼은 국가와 사회의 엘리트 지위를 더 견고히 하려는 등용문이 되었다.

9 에스라 2장의 명단에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온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이나 되었고(66-67절), 성전 건축 예물로 금 61,000다릭과 은 5,000마네와 제사장의 옷 100벌을 드렸던 것을 볼 때 귀환자들 중에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자들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에스라 2장의 명단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65절). 이들 명단은 귀환자들 중에 바빌론 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이 다수 포함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11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난 신학적 기원들", 「구약논단」, 47집 (2013년 3월), 140.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은 신명기의 혼합 결혼 금지조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여인과 결혼한 유다 남성들의 가정을 해체시키라고 말한다(스 10:3; 느 13:30).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신명기를 넘어서는 매우 엄격하고, 과격한 율법주의자들이면서,¹² 신명기 규정을 뛰어넘는 율법의 재해석자로 자리하게 된 셈이다.

혹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대상으로 ‘이방인’을 선택한 것이 골라 공동체 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말 ‘이방인’은 히브리어 용례상 통일된 한 단어가 아니라, 다양한 용어들로 되어 있으며, 또한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약성서에서 ‘이방인’은 ‘게르’(ger), ‘자르’(zar), ‘토샤브’(toshab), ‘노크리’(nokri) 혹은 ‘네카르’(nekar)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이방인은 위의 네 부류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중에 어느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지?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대상으로 삼았던 ‘이방인들’ 중에는 ‘이방인 남자’가 아닌, ‘이방인 여자’에게만 한정시키고 있는데, 왜 이방인 남성은 개혁대상이 되지 않았고, 골라 남성과 결혼한 이방인 여성만이 개혁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인지.¹³ 이에 대한 신학적 검토 또한 필요할 것이다.

우선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히브리어 ‘이방인’에 대한 용어가 ‘노크리’(נוכרי; 스 10:2, 10, 11, 14, 17, 18, 44; 느 13:26, 27)와 ‘네카르’(נכר; 느 9:2; 13:30)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크리’와 ‘네카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크리’와 ‘네카르’는 ‘솔로몬의 봉헌기도’(왕상 8:41, 43; 대하 6:32, 33)와 이사야서에서 야훼의 종말론적 제의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

12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168.

13 골라 여성이 이방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에 대해 골라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본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민 36:1-12) 이스라엘 남성에게 기업을 이어졌기 때문에 골라 여성의 혼합 결혼의 경우는 세습적인 토지 소유권을 잃을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골라 공동체는 골라 남성의 잡혼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사 56:3, 6)¹⁴으로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약성서 내에서 ‘노크리’와 ‘네카르’는 전적으로 부정적 관점 일색이었다. 그렇다면 ‘노크리’와 ‘네카르’가 어떤 ‘이방인’이길래 이렇게 부정적일까? 랑(B. Lang)은 ‘노크리’(혹은 ‘네카르’)가 ‘비 이스라엘인’(삿 19:12; 왕상 8:41)이면서 ‘타국인’(신 17:15)이자 ‘이방 여인’(왕상 11:1, 8)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노크리’(혹은 ‘네카르’)는 이스라엘 안에서 법률적인 보장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다.¹⁵ 포로 이후 골라 공동체가 새롭게 정화된 공동체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노크리’와 ‘네카르’는 배척 대상이 되어야 했음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방인 ‘게르’(גֵּר)는 어떠한가? 미크(T. J. Meek)는 ‘게르’를 야웨 종교로 개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¹⁶ 신명기에서는 이 ‘게르’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도와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신 14:28-29; 26:11-12). 그렇다면 에스라-nehemiah에서 ‘게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일단 에스라-nehemiah에서는 ‘게르’라는 히브리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게르’라 인정할만한 표현들은 암시되고 있다. 그것도 에스라 본문과 nehemiah 본문에서 각각 한 번씩 등장한다. 예를 들면, 제2성전 건축 후 봉헌식(스 6:16-18)이 진행되고, 이후 유월절 기념행사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בְּנֵי-יְהוּדָה)”인 ‘베네 학골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스 6:19). 그런데 이때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던 또 다른 그룹을 에스라 6장 21절에서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또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여 먹고 즐거워했다고 알려준다(스 6:21-22). 윌리엄슨(H. G. M. Williamson)은 이들을 가리켜 “개종자들”(proselytes)이라고 규정하고 있고,¹⁷

14 참고.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사 56장 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8집 (2010년 12월), 114-136.

15 B. Lang, גֵּר (ThWAT V, Stuttgart: Kohlhammer, 1986), 460.

16 T. J. Meek, “The Translation of *Ger* in the Hexateuch and its Bearing on the Documentary Hypothesis”, *JBL* 49 (1930), 172-180.

17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WBC 16: Waco: Word Books, 1985), 85.

블렌킨소프(J. Blenkinsopp)에 따르면 비록 이들이 히브리어 ‘게림(גֵּרִים)’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서 내부자들(insiders)이 되고 싶어 하는 외부자들(outsiders)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⁸ 즉,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의 유월절 기념행사에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 외에도 유다 땅에 거주하던 ‘게르’가 함께 동참했던 것이다. 이들은 ‘게림, 곧 야훼 신앙을 가진 ‘개종자들’이었다. 또한 느헤미야 10장 1-27절까지는 언약에 인봉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에 누락된 사람들을 요약적으로 소개한 본문이 느헤미야 10장 28절이다. 28절에는 가장 먼저 “그 남은 백성(עַם הַנֶּאֱמָר)”이 나오는데, “그 남은 백성”은 뒤이어 나오는 그룹들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즉, “그 남은 백성”에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활동하는 그룹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הַגֵּרִים וְכָל הַנִּבְרָאִים מִכָּל הַגּוֹיִם)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그 땅의 백성들과 구별된 모든 자’로 번역할 수 있다. 28절의 ‘그 땅의 백성’은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부정적으로 인식된 자들로 이들은 제2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이었으며 (스 4:4),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던 자들이었고(스 9:11), 골라 공동체가 끊어 버려야 할 대상이었으며(스 10:11), 안식일 법을 어기던 자들이었다(느 10:31).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28절의 ‘그 땅의 백성들과 구별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느 10:29)¹⁹이기 때문에 광의적인 의미로 본다면 ‘게르’를 포함한 야훼신앙 숭배자들을 의미하는 셈이다.

따라서 기원전 5세기 중반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공동체 정화라는 관점에서 혼합 결혼한 가정을 배척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방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노크리’(혹은 ‘네카르’) 여성과 결혼한 가정에 대한 제한적인 정화 작업을 시행했음을 알

18 J. Blenkinsopp, *Ezra-Nehemiah*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133.

19 윌클, 314.

수 있다.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든 이방인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선부론 선입견은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져다줄 것이다.

2) 스룹바벨의 사라짐

제1성전이 무너진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으로 가득 찼었다. 다윗계 왕족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뿔히고, 늦 사슬에 결박된 상태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으며(왕하 25:7),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유다 지역에 새로운 지도자 그달리야를 임명했다(왕하 25:22). 열왕기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달리야의 정확한 직책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영어성서 일부 역본(NRSV)에서는 그를 ‘총독’(חַמְלָא)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런 그달리야를 다윗계 후손인 이스마엘이 암살하는데(왕하 25:25), 예레미야서는 이런 이스마엘의 호칭을 “왕의 장관”(רֹבֵי הַמְּלָכָה)이라고 알려준다(렘 41:1). 이스마엘을 “왕의 장관”이라고 했다면 아마도 바빌론 왕이 그달리야를 ‘봉신왕’으로 세웠다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그런 봉신왕 그달리야의 ‘라브’(רַב), 즉 ‘고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계의 후손인 왕족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비다윗계인 그달리야를 유다의 봉신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에 암살을 도모하게 된다.²⁰ 그러나 신명기 역사가는 바빌론의 봉신왕 그달리야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기원전 597년 바빌론에 끌려간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은 바빌론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을 가리켜 “유다의 왕”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바빌론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와 죄수의 의복을 벗고, 평생 왕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왕에게서 일정한 생계비(『새번』역)를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다(왕하 25:27-30).²¹ 이에

20 G. L. Keown 외, *Jeremiah 26-52* (WBC 27; Dallas: Word Books, 1995), 241.

21 신명기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인 열왕기하 25장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으나 본 본문에서는 논외로 하겠으며,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참고.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Tübingen: Max Niemeyer, 1943); H. W. Wolff, “Das Kerygma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s”, *ZAW* 73 (1961), 171-186; H. Niehr, “Religio-Historical Aspects of the ‘Early Post-Exilic’ Period”, *Oudtestamentische Studiën* 42 (1999), 228-244.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던 하지만 신명기 역사서의 마무리를 감옥에 갇혀 있던 왕이 자유의 몸이 되어 그의 지위가 상승되었다는 것은 희망적인 보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미래적 희망의 보도는 고레스에게 와서 화룡점정이 되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에 무혈입성하면서²² 바빌론의 왕이 되었던 고레스가 칙령(기원전 538년)을 통해 바빌론에 있던 포로민들의 귀환과 신전(temple) 건축을 허락한다(스 1:2-4). 이런 고레스를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자’(사 44:28)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사 45:1)인 ‘메시아’로 인정했고, 이런 예언자의 선포에 힘입어 바빌론에 있던 강제 이주민들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던 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감 가운데 있었다.²³ 또한 포로민들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렘 25:12; 29:10)이 드디어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에 한껏 부풀어 올랐다. 다윗계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대상 3:19)을 앞세워 무려 남자 장정 42,360명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며, 이런 스룹바벨의 주도아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스 3:8). 그러나 막힘이 없을 것 같았던 성전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스 4:24).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한껏 부풀어 있던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중단이라는 위기를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스 5:1) 돌파하게 된다.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과 질책과 예언으로 유다 지역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나 예언자들을 도와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다(스 5:2).

그런데 문제는 제2성전 건축의 기초공사가 스룹바벨에 의해 시작되었고, 중단된 성전 공사 역시 스룹바벨에 의해 재개되었지만, 성전 공사의 마무리 보도(스 6:14)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놀랍게도 빠져있다. 스가랴서에는

22 이종근,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구약논단』 48집 (2013년 6월), 148; 제임스 B. 프리처드, 『고대근동문학선집』 (강승일 외 5인 옮김) (서울: CLC, 2016), 551.

23 J. D. W. Watts, *Isaiah 34-66* (WBC 25: Waco: Word Books, 1987), 156.

‘썩’(חֲרָבָה)²⁴이라 이름 하는 사람, 스투바벨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스 6:13), 예언자 스가라가 다리오 통치 2년(스 1:1, 기원전 520년)부터 4년(스 7:1[기원전 518년])까지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스가라의 예언 활동은 성전 공사가 완공(기원전 516년)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블렌킨소프는 스투바벨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느 시점에선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의문을 제기한다.²⁵ 블렌킨소프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은 성전 공사 재개 이후 총독장 닷드내와 상대하는 유다 예루살렘의 대표는 “유다의 장로들”(스 5:5, 9)이었고, 다리오 왕과 상대했던 성전 건축 위원장 역시 “유다 사람의 장로들”(스 6:8)이었다. 그렇다면 유다 총독 스투바벨은 성전 건축 도중에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장춘식은 성전 건축의 지도자였던 스투바벨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유다의 장로들로 대체된 이유가 성전 건축의 주도권을 페르시아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지방 정부에 대한 자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투바벨의 사라짐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혹시 스투바벨의 사라짐이 포로 이후 골라 공동체와 페르시아 정부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변수로 작용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게 스투바벨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다. 스투바벨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골라 공동체에게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명성을 다시 회복해 주기를 바라던 인물이었다.²⁷ 그도 그럴 것이 스투바벨은 다윗계의 후손이었다(대상 3:19).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24 히브리어 ‘썩’(חֲרָבָה)은 이스라엘의 ‘왕적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포로 이후 골라 공동체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스투바벨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렘 23:5[“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חֲרָבָה)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25 J. Blenkinsopp,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09), 124.

26 장춘식, 『에스라/느헤미야』 (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30.

27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3판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1), 507-511.

스룹바벨을 유다 지역의 ‘총독’이면서 ‘왕’적인 존재로 인정했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었다는 증거는 학개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학 1:1, 14; 2:2, 21), 스룹바벨이 ‘왕’적 신분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정했다는 증거는 스가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스가랴 6장 13절에는 “그(=스룹바벨)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스룹바벨의 이런 왕적 신분은 페르시아 정부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골라 공동체가 인정한 신분이었다.²⁸ 또한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를 지어 몰려들어 밭 디딜 틈이 없는 거대한 도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스 1:17; 2:4-5). 유다 예루살렘 지역의 이러한 움직임은 페르시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었다. 다리오 1세의 통치 기간(기원전 522-486년) 중 지역의 반란과 소요사태가 19회나 반복되어서 다리오 왕은 설새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이었다.²⁹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방식들 중의 하나가 악성투머였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느 6:7). 이처럼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유다의 왕’이라는 누명을 씌워 느헤미야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 입장에서는 속주에 허락하지 않은 왕을 옹립하거나, 혹은 독립을 꾀하려는 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³⁰ 즉, 골라 공동체 내에서 스룹바벨을 왕적 존재로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스룹바벨을 제국의 왕실에서는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펜샴(F. C. Fensham)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이전에 죽었다고 주장하고,³¹

28 소형근, “포로 이후 초기에 나타난 왕권과 제사장권,” 『구약논단』 36집 (2010년 6월), 142.

29 에드윈 M. 아마우찌, 『페르시아와 성경』 (박응규, 이한영, 조용성 옮김) (서울: CLC, 2010), 179. 기원전 518년 이집트 총독 아리안데스의 도발적 행동으로 다리오는 군대를 보내 아리안데스를 살해했으며, 기원전 499-493년에는 이오니아 지방의 반란으로 페르시아 원정길에 나서기도 했다.

30 존 브라이트는 이러한 루머를 페르시아 왕실에 제공했던 세력으로 ‘사마리아의 귀족들’을 지목하고 있다. 존 브라이트, 『룻』, 510.

31 F. C. Fensham,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2), 78-79.

에스케나지(T. C. Eskenazi)는 성전 건축 본문이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집중했었기 때문에 스투바벨을 에스라 5장 2절 이후에 생략했다고 주장한다.³² 그러나 이 두 주장 또한 스투바벨의 사라짐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성전 건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스투바벨이 도중에 사라진 이유는 위의 정황들을 고려할 때 페르시아 정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스투바벨 이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될 때까지 유다 지역에 총독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³³ 만약 스투바벨이 왕실로부터 소환되었을 가능성이나, 암살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일까?³⁴ 만약 스투바벨이 왕실로부터 소환당하거나 암살당했다면 당시 예언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독설을 내뱉었을 것이 뻔하다. 그러나 학개는 스투바벨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고 언급하고 있고(학 1:14), 스가라는 스투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성전 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예언했다(슥 4:3; 6:13). 그러나 성서 내적 증거로 볼 때 스투바벨이 성전 공사 완공 이전에 골라 공동체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스투바벨이 페르시아 왕실에 소환되었거나, 암살당했다면 학개와 스가라의 예언 활동이 그 전에 마쳐졌거나, 혹은 이 두 예언자들이 그 이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던 총독 스투바벨이 제2성전 건축 도중 사라졌던 것과 그 자리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대체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스투바벨이 사라진 이유는 유다 공동체 내에서 불기 시작했던 메시아적 기대감과 왕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을 자극하고, 긴장하게 만들었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2 T. C. Eskenazi, *In an Age of Prose: a Literary approach to Ezra-Nehemiah* (Atlanta: Scholars Press, 1988), 48-53.

33 스투바벨이 사라지고 난 후 유다 지방은 사마리아 지역의 일부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무명의 지방 관리들에 의해 통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4 존 브라이트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스투바벨이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존 브라이트, *룻골*, 511.

3) 느헤미야의 총독임명 시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Artaxerxes I, 기원전 465-424년) 통치 시기였다.³⁵ 아하수에로(Xerxes I, 기원전 519-465년)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가 왕위에 오르는 상황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아버지 아하수에로를 암살했던 왕실 호위대장 아르타바누스(Artabanus)의 거짓 정보로 인해 형 다리오를 죽였던 아닥사스다 1세는 아르타바누스마저 죽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통치 초기에 아닥사스다는 지역의 반란들과 그리스 연합군이 이집트를 지원하면서 골머리를 앓게 된다. 아닥사스다는 기원전 463년 박트리아(Bactriana) 지역의 반란을 무력화시켰지만, 기원전 460년 이집트와 리비아 반란군의 소요로 페르시아 군대가 멤피스 지역까지 퇴각해야만 했다. 그러나 메가비주스(Megabyzos)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투입되어 이집트의 반란군이 제압되었다(기원전 456/5년). 이집트의 반란은 거의 6년에 걸친 긴 항쟁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믿었던 시리아 지역 총독 메가비주스마저 아닥사스다에 반란을 일으킴으로(기원전 449-447년) 또 다시 제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바빌론 지역에서 유다 예루살렘에 파견되었던 인물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 에스라는 이집트의 반란 이후에 유다 예루살렘에 왔고(기원전 458년),³⁶ 느헤미야는 메가비주스의 반란이 진압된 직후에 유다 예루살렘에 왔다(기원전 445년).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오게 된 배경에는 열조의 땅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던 상황 때문이었다(느 1:3).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

35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유다 예루살렘 귀환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1세 7년(기원전 458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 20년(기원전 445년)에 유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것을 전제하며 논증해 나갈 것이다. 민경진, *읽글*, 113-137.

36 에스라가 유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라 7장에서 그의 미션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에스라는 아해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왔으며(10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왔다(14절). 또한 바빌론 지역에서 가져온 예물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17절), 하나님의 율법을 이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재판하게 하고, 가르칠 목적으로 왔다(25-26절).

들이 전소된 사건이 언제 발생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기원전 586년 유다 멸망의 사건도, 기원전 485년³⁷ 레반트 지역 연합군의 공격의 시점도 아닌, 느헤미야가 살던 시기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이면서 에스라 4장 23절³⁸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경진의 주장처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성벽건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했던 계획이 좌절된 사건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³⁹ 열조의 땅 예루살렘의 성벽건축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느 1:4). 그리고는 기회를 엿보았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한 후 4개월⁴⁰이 지난 시점에 왕을 알현할 기회가 찾아왔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한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느 2:5). 이에 대해 아닥사스다 왕은 ‘ 좋게 여겼다’(בְּטוֹב וְיָיִן)고 반응한다(느 2:6).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의 파송허락을 받은 후 ‘기한’(קֶדֶם; appointed time)을 정했다(느 2:6).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파괴된 성(城)을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민경진은 기원전 5세기 레반트 지역에 그리스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느헤미야를 파견하여 ‘요새’를 건축하게 했다고 주장한다.⁴¹ 하지만 그리스의 델로스 동맹 세력과 페르시아 사이의 오랜 전쟁이 ‘칼리아스 평화조약’(기원전 449년)을 통해 종전 선언(디오도로스, XII 4)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락이 그리스 세력의 레반트 지역 방어 목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신복이자, 이집트 반란을

37 J. Morgenstem, “Jerusalem - 485 B.C.?” *HUCA* 27 (1956), 101-179.

38 에스라 4장 23절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하여 성 공사를 멈추게 했던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을 불타 예루살렘 성벽건축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39 민경진, *읽글*, 130.

40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르월에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했고(느 1:1), 4개월 후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나아갔다(느 2:1).

41 민경진, *읽글*, 131.

수습했던 시리아 지역 총독 메가비주스의 반란(기원전 449-447년)⁴²으로 인해 제국의 속주를 더 견고히 하고자 이집트 접경지역인 유다 지방에 친페르시아 관리였던 느헤미야를 파송하여 성벽을 건축하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한’(느 2:6)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 ‘기한’은 느헤미야가 본래 계획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기한’을 말한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나면 다시 페르시아 왕실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나 느헤미야 5장 14절에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준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파송된 것인지? 아니면 유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총독이 된 것인지? 혹은 자신의 임무를 모두 마친 후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총독으로 임명되어 다시 유다 지방에 온 것인지? 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키드너(D. Kidner)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약속한대로 예루살렘 성벽공사를 끝내고 페르시아로 복귀한 후 다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고 주장한다.⁴³ 그러나 느헤미야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공사를 마친 후 제국의 왕실로 돌아갔다는 언급이 없다. 이와는 달리, 블렌킨소프(J. Blenkinsopp)는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총독임기를 파송 초기인 아닥사스다 통치 제 20년부터 총독직을 수행한 것으로 계산했다고(느 5:14) 주장한다.⁴⁴ 슈미트(W. H. Schmidt) 또한 블렌킨소프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느헤미야 본문의 전후맥

42 A. T. Olmstead,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332; H. L. Ginsberg, "Artaxerxes", (Encyclopaedia Judaica 3: Jerusalem: Keter Pub. House, 1972), 646.

43 D. Kidner, *Ezra & Nehemiah*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Book 12;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9), 81.

44 J. Blenkinsopp, *Ezra-Nehemiah*, 214; 슌크(K.-D. Schunck) 또한 느헤미야가 생각한 ‘기한’(느 2:6)과 총독직과는 별개이며, 느헤미야의 ‘기한’은 3년-5년 정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K.-D. Schunck, *Nehemiah* (BKAT XX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37.

락을 근거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전권을 부여받은 후 성벽 공사가 성공을 거둔 이후에 유다 지방의 총독이 되면서 유다가 사마리아로부터 분리되고, 독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⁴⁵ 윌리암슨 또한 느헤미야 2장 6절의 전체 장면은 최대한 경제적으로 서술된 본문으로 느헤미야가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으며, 그보다는 자신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임무가 그의 파견의 ‘기한’이 된다고 말한다.⁴⁶ 그렇다면 그의 임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그때까지가 그의 ‘기한’이었다. 그렇다. 느헤미야의 초기 ‘기한’(느 2:6)은 유다 지방의 총독직 수행의 기한이 아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의 임무의 기한이었다. 그래서 대적들인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느헤미야 보다 높은 신분과 권위와 권한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이다(느 2:19; 4:1, 7; 6:2-14). 만약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중에 총독의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면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 대등한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본문에서 묘사되어야 하는데,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친 후에는 대적들의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 것을 볼 때 이후 느헤미야의 신분이 바뀌어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⁷

3. 결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난제들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는 에스라-느헤미야서가 이방인과 결혼한 ‘혼합 결혼’을 공동체 정화 차원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히브리어

45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I』 (차준희, 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36.

46 H. G. M. 윌리암슨, 『에스라-느헤미야』 (WBC 16)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360.

47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산발랏의 언급이 전혀 없다가 느헤미야 13장에서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보도만 나올 뿐이다(28절).

‘게르’가 아닌, ‘노크리’(혹은 ‘네카르’)가 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밝혔다. 즉, ‘게르’는 유월절 기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스 6:21), ‘게르’는 언약에 인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들이었다(느 10:28). 따라서 이방인 ‘게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는 스룹바벨이 제2성전 건축 도중에 사라진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에스라 5장 2절 이후에는 성전 건축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 아닌 ‘유다 사람의 장로들’로 대체되었고, 스룹바벨은 더 이상 골라 공동체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는 포로 이후 골라 공동체 내에서 불기 시작했던 메시아적 기대감과 왕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을 자극하고, 긴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 도중에 제국으로 소환되었거나, 암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느헤미야의 총독 임명 시기에 대한 논쟁이었다. 느헤미야의 본래 임무는 무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 임무가 마쳐지면 페르시아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다사스다 통치 제20년부터 32년까지 총독직을 수행했다고 알려준다(느 5:14). 따라서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유다가 사마리아로부터 분리되면서 독립하게 되었다. 이후 느헤미야 대적들의 공격이 더 이상 느헤미야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 김래용,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연구사: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337-369.
- 김선중, “에스라-느헤미야 연구서설”, 「구약논단」 73집 (2019년 9월), 49-73.
-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에스라-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7집 (2008년 3월), 113-137.
-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사 56장 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8집 (2010년 12월), 114-136.
-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I』 (차준희, 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소형근, “포로 이후 초기에 나타난 왕권과 제사장권,” 『구약논단』 36집 (2010년 6월), 138-153.
- 에드윈 M. 야마우찌, 『페르시아와 성경』 (박응규, 이한영, 조용성 옮김) (서울: CLC, 2010).
- H. G. M. 윌리엄슨, 『에스라-느헤미야』 (WBC 16)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 이종근,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구약논단』 48집 (2013년 6월), 128-166.
- 장춘식, 『에스라/느헤미야』 (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제임스 B. 프리처드, 『고대근동문학선집』 (강승일 외 5인 옮김) (서울: CLC, 2016).
-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형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3판)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1).
- Blenkinsopp, J., *Ezra-Nehemiah*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 _____,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09).
- Ephal, E., “The Western Minorities in Babylonia in the 6th-5th Centuries B.C.: Maintenance and Cohesion”, *Or* 47 (1978), 74-90.
- _____, “On the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 of the Jews in Babylonian Exile”, in *XXI Deutscher Orientalistentag Vorträge*, ed. Fritz Steppart.

- ZDMGSup 5 (Wiesbaden: Steiner, 1983), 106-112.
- Eskenazi, T. C., *In an Age of Prose: a Literary approach to Ezra-Nehemiah*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Fensham, F. C.,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2).
- Ginsberg, H. L., "Artaxerxes", (Encyclopaedia Judaica 3; Jerusalem: Keter Pub. House, 1972), 646-647.
- Kidner, D., *Ezra & Nehemiah*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Book 12;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9).
- Lang, B., תנ"ך (ThWAT V; Stuttgart: Kohlhammer, 1986), 460.
- Keown, G. L. ㉑, *Jeremiah 26-52* (WBC 27; Dallas: Word Books, 1995).
- Meek, T. J., "The Translation of Ger in the Hexateuch and its Bearing on the Documentary Hypothesis", *JBL* 49 (1930), 172-180.
- Morgenstern, J., "Jerusalem - 485 B.C.?", *HUCA* 27 (1956), 101-179.
- Niehr, H., "Religio-Historical Aspects of the 'Early Post-Exilic' Period", *Oudtestamentische Studiën* 42 (1999), 228-244.
- Noth, M.,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Tübingen: Max Niemeyer, 1943).
- Olmstead, A. T.,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Schunck, K.-D., *Nehemia* (BKAT XX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 Stolper, M. W., *Entrepreneurs and Empire: The Murasu Firm, and Persian Rule in Babylonia* (Istanbul: Nederlands Historisch-Archaeologisch Instituut, 1985).
- Watts, J. D. W., *Isaiah 34-66* (WBC 25; Waco: Word Books, 1987).
- Williamson, H. G. M., *Ezra, Nehemiah* (WBC 16; Waco: Word Books,

1985).

Wolff, H. W., "Das Kerygma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s",
ZAW 73 (1961), 171-186.

검색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방인

총독

Difficult Problems in the Study on Ezra-Nehemiah and Their Solutions

Hyeong-Geun So Dr. theol.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al with three difficult problems in the study on Ezra-Nehemiah and to solve them.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texts of Ezra-Nehemiah regarded mixed marriage as the object of reform in terms of community purification, but the Gentiles here was not 'ger' in Hebrew but 'nokri' (or 'nekar'). In other words, 'ger' participated in the Passover celebration (Ezra 6:21), and they were authorized to seal the covenant (Neh 10:28). The second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incident that Zerubbabel disappeared during the temple construction. After Ezra 5:2, the leaders of temple building were replaced by elders of Judah other than Zerubbabel, and he no longer existed in the golah community. The reason was that, expectations to restore the messianic and Davidic dynasty which have occurred within the golah community, have stimulated the Persian Empire. Therefore, he was most likely summoned from the royal court or assassinated.

www.kci.go.kr

The third is the debate on the period of Nehemiah's appointment for governorship. His original mission was to rebuild the broken walls of Jerusalem (Neh 2:5), and after his mission he must return to Persia. But he was governor of Judah from the twentieth year to the thirty-second year when Artaxerxes was king (Neh 5:14). Therefore, he was appointed as a governor of Judah after completing the temple construction, and later Judah became independent from Samaria district. This can be a guess from the fact that the enemies of Nehemiah no longer appear in the text of Nehemiah.

Keywords

Ezra

Nehemiah

Zerubbabel

the Gentiles

governor

- 투고일: 2019년 10월 12일
- 심사일: 2019년 10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4일

www.kci.go.kr